

##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모형구축\*

김 혜 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가 되는 시점은 임신의 시작과 더불어 진행되고 임신 동안 어머니 역할이란 현실적인 아기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를 대상으로 한 관계에서 시작 발전되므로 임신 동안 모성 역할 획득은 곧 모성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Walker(1992) 역시 임신 동안 갖게 되는 어머니 됨의 주요한 특성은 바로 모성 정체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론적으로 볼 때 모성 정체성은 분명 임신의 시작부터 발전되어 나간다는 주장(Rubin, 1984; 이은희, 1995)이 우세하다. 이와 같이 모성 정체성이 임부의 중요한 어머니 됨의 속성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나 현재 모성 정체성은 관련된 연구에서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이해되고 사용되어 추상성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신 동안의 모성 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이 출산 후 실제 아기 어머니로서의 기능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모성 정체성의 개념을 구체화한 시도(김혜원과 홍경자, 1996)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Rubin(1967)의 관점 즉, 어머니가 된다

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identity)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재 정의하는 것이며 직권이니 본능으로 모성 행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지적 차원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성 정체성은 어머니로서 임신 동안 경험하는 내적 과정으로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이러한 내적 경험을 이루는 인지 과정이 효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임신한 여성은 생물학적인 영향과 구별되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이 지닌 마음(mind)의 능력은 특유의 지향성으로 이해되는데, 지향성이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목적적 행위이면서 또한 일반화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성이 지향성을 지닌 마음(mind)의 능력이라면 임부는 목적적인 정보처리 능력이 가능한 존재로 해석되므로, 정보처리 접근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이 지닌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임신 동안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임부는 중요한 어머니 속성으로서 모성 정체성을 형성하여 적응해 나간다고 전제하였을 때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이해, 설명할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도되었

\* 본 논문은 1996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임.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다. 현재까지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대한 설명적 기틀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정보처리적 관점에 의해 모성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며 아울러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작용을 규명하여 임부의 적응을 증진시키고 향후 임부를 위한 간호중재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연구되지 못한 특히 초기 모성 전환 과정을 이해하고 규명함으로써 어머니됨(모성: motherhood)에 대한 이론 발전에 기여하며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임부의 어머니 됨(motherhood)의 과정에서 어머니 됨의 중요 특성의 하나인 모성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구조 틀을 제시함으로써 어머니 됨과 관련된 이론 개발과 실무, 그리고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임부의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구조를 규명한다.
- 2) 정보처리적 관점에 의해 모성 정체성과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 3) 초임부를 대상으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기틀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3. 용어 정의

### 1) 모성 정체성(maternal identity)

- 이론적 정의: 아기의 어머니로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이상적인 것을 향하는 것이며 새롭고 바람직한 태도, 능력, 그리고 이상적인 요소들을 갖춘 모델을 찾기 위해 환경과 기억을 탐색하고 모방을 거쳐 자신의 모습으로 통합하는 것이다(Rubin, 1984).
- 조작적 정의: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임신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태아와의 상호성에 기초한 인지 현상으로, 인지의 구조로서 지각(cognitive-perception), 행위(cognitive-behavior), 정서(cognitive-emotion)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 어머니로서 태아에게 시행하는 심상적인 어머니 역할의 정도, 모-

태아 상호작용의 정도, 그리고 임부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의 정도를 말한다.

### 2) 임신 의도(pregnancy intention)

- 조작적 정의: 임신 계획의 의도와 임신을 유지하려는 의지, 그리고 임신 결정의 부부 일치성의 정도를 말한다.

### 3) 신체적 불편감(minor discomfort)

- 조작적 정의: 임신에 따른 임부의 신체적 증상으로 특별한 치료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불편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 4) 모성에 대한 가치(value of motherhood)

- 조작적 정의: 임신, 출산,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의 정도를 말한다

### 5) 친밀성(intimacy)

- 이론적 정의: 온화하고 친근한 느낌을 갖고 타인과 가깝게 지내고자 시도하려는 성향이며,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적 요소이다(박아청, 1995).
- 조작적 정의: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의 정도를 의미한다(박아청, 1995).

### 6) 어머니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mother)

- 조작적 정의: 인부가 가족 중 친정 어머니 또는 대리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각하는 밀접성, 공감대의 정도를 말한다(Lederman, 1984).

### 7) 남편과의 관계(relationship with husband)

- 조작적 정의: 임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결혼 관계의 질을 말한다(Lederman, 1984).

### 8) 사회적 관계(relationship with social network)

- 조작적 정의: 가족을 제외한 임부와 관련 있는 사회적 지지망(친지,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부터 받은 정보적, 정서적 도움의 지각을 말한다(김정애와 이미라, 1993).

### 9) 모성관련 지식(maternal knowledge)

- 조작적 정의: 예비 어머니로서 학습해야 할 어머니 역할에 관련된 지식으로 임신, 출산, 피임법, 모성 행위에 관한 지식 습득의 정도를 말한다.

10) 산전 자가 간호(antenatal self care)

- 조작적 정의 : 임신 동안 임부가 태아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가 간호 빈도의 정도를 말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를 임의 표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임부에게 일반화할 수 없고 횡단적 자료 수집에 의한 연구이므로 이론적 배경과 통계적 기법에 의한 인과성을 제시하는 데 국한된다.

### III. 이론적 기틀

####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정보처리 모형에 기초하여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 인지를 정보처리 모형의 투입과 산출 요인에 의해 설명한다. 즉,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첫째,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의 인지에 관련되어 투입으로서 작용하는 요인들과 둘째, 인지의 산출 결과로 지각, 행위, 정서의 인지적 구조를 갖는 모성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투입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임신 관련 의미 있는 지각 요인, 사회 심리적 특성 요인, 대인관계 요인, 모성 준비도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의 5요인이 선택되었다. 이들 투입 요인들을 대표하는 변수는 첫째, 임신 관련 지각 요인에 임신 의도, 신체적 불편감, 모성에 대한 가치이고, 둘째, 사회 심리적 특성 요인은 친밀성이며, 셋째, 대인관계 요인에는 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가 포함되고, 넷째, 모성 준비도 요인에는 모성 관련 지식과 산전 자가 간호가 포함된다. 산출 요인은 모성 정체성으로, 모성 정체성을 대표하는 변수는 지각 요인, 행위 요인, 정서 요인으로 구분된다.

#### 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이론적 배경에 의해 선택된 변수들 중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초기 모형 구축의 타당성을 높인다고 보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친밀성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설명 변수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임신 의도,

신체적 불편감, 모성에 대한 가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모성 관련 지식, 산전 자가 간호, 그리고 임신 기간의 8개 변수를 가설적 모형에서의 외생변수로 가정하였으며, 가설적 모형의 내생 변수는 모성 정체성이다. 가설적 모형에서 제시된 외생변수들은 변수가 속한 요인들로부터 따로 분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변수들이 각 요인에 대하여 투입으로서 공통적인 특성을 갖지만 그들 변수들의 구조가 한 이론 변수를 측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각 변수들의 특성이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을 요인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일차적으로 모성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으므로 모성 정체성을 내생 변수로 가정하여 외생변수들로 부터의 일방향적 성모를 설정하였다. 본 가설적 모형에서 모성 정체성은 지각, 행위, 정서의 3인지 구조에 의해 이루어진 이론 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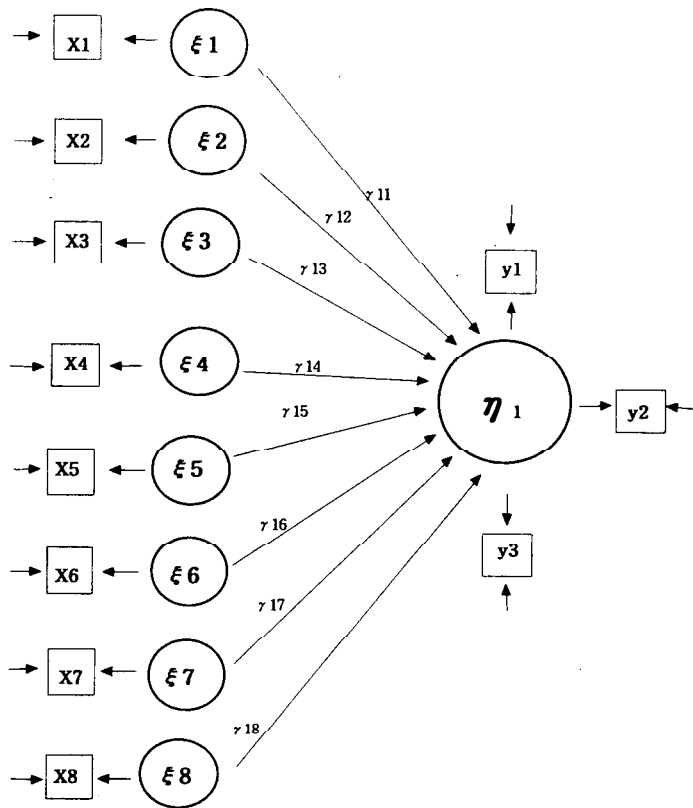
모성 정체성과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는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탐색적으로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입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모두 산출 요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변수들 간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 3. 연구 가설

가설적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가설로 제시하였다.

- 1) 임신 의도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1}$ ).
- 2) 신체적 불편감이 적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2}$ ).
- 3) 모성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3}$ ).
- 4)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4}$ ).
- 5)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5}$ ).
- 6) 모성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6}$ ).
- 7) 산전 자가 간호를 많이 할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7}$ ).
- 8) 임신 기간이 길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8}$ ).



• 이론변수

$\xi 1$ 임신 의도	$\xi 2$ 신체적 불편감	$\xi 3$ 모성에 대한 가치	$\xi 4$ 남편과의 관계
$\xi 5$ 사회적 관계	$\xi 6$ 모성 관련 지식	$\xi 7$ 산전 자기간호	$\xi 8$ 임신기간

• 측정변수

$X1$ 임신의도	$X2$ 신체적 불편감	$X3$ 모성에 대한 가치	$X4$ 남편과의 관계
$X5$ 사회적 관계	$X6$ 모성 관련 지식	$X7$ 산전 자기간호	$X8$ 임신기간
$y1$ 모성정체성 지각	$y2$ 모성정체성 행위	$y3$ 모성정체성 정서	

〈그림 1〉 모성 정체성 인지의 가설적 모형

## IV. 연구 방법

### 2. 연구 대상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임신 관련 지각, 사회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모성준비도와 생물학적 요인이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횡단적 자료 수집에 의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임부로서 분만의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0명이었으나 응답 과정에서 탈락을 보인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6명이 연구 대상이 되어 응답률은 75.3%를 보였다.

###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1996년 1월 3일에서 3월 15일 까지 서울, 강원, 경북, 전북 지역의 8개 산부인과 의원, 종합병원의 외래, 병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에게 질문지 작성과 대상

자 접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을 마친 뒤 대상자에게 질문지 작성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그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구의 신뢰도 계수

변 수	도 구	최종 문항수(가능한 점수범위)	신뢰도 계수
모성정체성 지각요인	어머니 이미지 지각척도	17(17-85)	.93
모성정체성 행위요인	역할심상척도 모-태아 상호작용척도	10(10-40) 10(10-40)	.93
모성정체성 정서요인	행복감척도 부정적정서척도	11(11-44) 9( 9-36)	.87
임신의도	임신의도척도	5( 5-20)	.75
신체적 불편감	경증불편감척도	25(25-100)	.85
모성에 대한 가치	모성가치척도	8( 8-32)	.56
신밀성	근접성척도	9( 9-45)	.59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관계척도	10(10-40)	.85
남편과의 관계	남편관계척도	10(10-40)	.71
사회적 관계	사회적관계척도	13(13-52)	.93
모성관련 지식	모성관련지식척도	20(20-40)	.82
산전자가간호	산전자가간호척도	23(23-92)	.74

### 5. 자료 분석 방법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로 계산하였다. 모성 정체성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성과 모형의 부합도는 LIS-REL 8.03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이때 경로계수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계산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이론 모형에서의 특징수 추정치(Parameter Estimates)

〈표 2〉 가설적 모형 : 이론모형의 특징수(GAMMA)추정치, T값, SMC, PSI, 및 표준화 계수(SS)

내생변수 예측변수	특징수 추정치(SE)	SS	T값	SMC	PSI(SS)
모성 정체성				.986	.005(.014)
임신의도	.037(.076)	.053	.484		
신체적불편감	-.074(.050)	-.112	-1.481		
모성에 대한 가치	.650(.147)	.803	4.426*		
남편과의 관계	.067(.076)	.093	.884		
사회적 관계	-.076(.063)	-.112	-1.203		
모성 관련 지식	.137(.067)	.204	2.030*		
산전 자가간호	.053(.094)	.076	.569		
임신기간	.113(.043)	.188	2.621*		

SE : standard error

SS : standard solu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 2. 내생변수의 총 효과(Total Effect)

〈표 3〉 모성 정체성에 대한 외생변수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 및 표준화 계수(SS)

모성 정체성/하위 요인 외생변수	총효과(T)	표준화 계수
모성 정체성/지각요인		
임신의도	.030(.483)	.026
신체적불편감	-.060(-1.469)	-.055
모성에 대한 가치	.527( 4.134)*	.393
남편과의 관계	.054(.881)	.046
사회적 관계	-.062(-1.197)	-.060
모성 관련 지식	.111(2.000)*	.100
산전 자가간호	.043(.658)	.037
임신기간	.092(2.556)*	.092
모성 정체성/행위 요인		
임신의도	.037(.484)	.032
신체적불편감	-.074(-1.481)	-.068
모성에 대한 가치	.650( 4.426)*	.484
남편과의 관계	.067(.884)	.056
사회적 관계	-.076(-1.203)	-.074
모성 관련 지식	.137( 2.030)*	.123
산전 자가간호	.053(.569)	.046
임신기간	.113( 2.621)*	.113
모성 정체성/정서요인		
임신의도	.051(.484)	.044
신체적불편감	-.103(-1.493)	-.094
모성에 대한 가치	.905( 4.790)*	.674
남편과의 관계	.093(.886)	.078
사회적 관계	-.106(-1.210)	-.103
모성 관련 지식	.190( 2.062)	.171
산전 자가간호	.074(.569)	.064
임신기간	.158( 2.691)*	.158

\*statistically significant

## 4. 연구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각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임신의도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1}$ )

직접 효과( $\gamma = .037$ ,  $T = .48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 2. 신체적 불편감이 적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2}$ )

직접 효과( $\gamma = -.074$ ,  $T = -1.48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 3. 모성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3}$ )

직접 효과( $\gamma = .650$ ,  $T = 4.42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지지되었다.

가설 4.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4}$ )

직접 효과( $\gamma = .067$ ,  $T = .88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 5.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5}$ )

직접 효과( $\gamma = -.076$ ,  $T = -1.20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 6. 모성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gamma_{16}$ )

직접 효과( $\gamma = .137$ ,  $T = 2.03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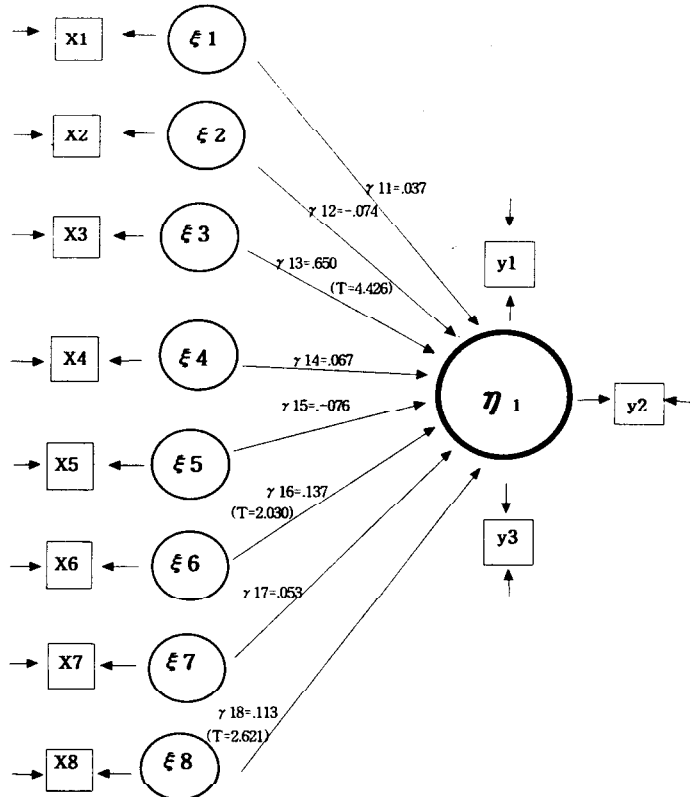
가설 7. 산전 자가 간호가 많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 $\gamma_{17}$ )

직접 효과( $\gamma=.053$ ,  $T=.56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 8. 임신 기간이 길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 $\gamma_{18}$ )

직접 효과( $\gamma=.113$ ,  $T=2.54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지지되었다.

이상 총 8개 가설 중에서 3개가 지지되었다.



#### • 이론변수

$\xi 1$  임신 의도       $\xi 2$  신체적 불편감       $\xi 3$  모성에 대한 가치       $\xi 4$  남편과의 관계  
 $\xi 5$  사회적 관계       $\xi 6$  모성 관련 지식       $\xi 7$  산전 자가간호       $\xi 8$  임신기간

$\eta 1$  모성 정체성

#### • 측정변수

$X1$  임신의도       $X2$  신체적 불편감       $X3$  모성에 대한 가치       $X4$  남편과의 관계  
 $X5$  사회적 관계       $X6$  모성 관련 지식       $X7$  산전 자가간호       $X8$  임신기간  
 $y1$  모성정체성 지각       $y2$  모성정체성 행위       $y3$  모성정체성 정서

〈그림 2〉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

## Ⅶ.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모형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초임부 22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1996년 1월 5일에서 3월 15일까지 질문지 조사법에 의해 횡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공변량 구조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인지적 구조로 간주되어 초임부에 있어서 모성 정체성의 영향변수들이 모성 정체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인지적 투입요인, 인지적 산출요인에 의한

정보처리모형에 의해 설명하였다.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과 관련된 변수와의 인과적 관계를 가설화하기 위해 먼저 모성 정체성에 영향력있는 설명변수를 단계적 승다귀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더니, 임신의도, 신체적 불편감, 모성에 대한 가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모성관련 지식, 산전 자간호, 그리고 임신기간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간 관계를 가설적 모형으로 제시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모성 정체성에 인과적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는 모성에 대한 가치, 모성관련 지식, 그리고 임신 기간이었고, 모형 전체의 결정 계수(SMC)는 .986,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GFI=.964, AGFI=.84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초임부에 있어서 모성 정체성의 인지 구조를 3가지 차원으로 보고 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시도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정보처리 모형을 적용한 인지적 투입 요인과 인지적 산출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2. 제 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초임부에게 모성에 대한 가치, 모성 관련 지식은 모성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 변수이므로 임부의 기초적 간호 사정이 되어야 한다.
2. 초임부의 모성관련 지식은 모성 정체성에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므로 지식이 낮은 임부들을 대상으로 산전교육을 실시한 후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함 필요가 있으며 모성 정체성 개념이 문화간 차이가 있는지 횡문화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3. 임신 기간에 따른 모성 정체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정애, 이미라 (1993). 임부의 지각된 지지형성에 기여하는 요인. 간호학회지, 23(4), 511-527.
- 김혜원, 홍경자 (1996).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간호학회지, 26(3), 인쇄중.
-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중앙정성 출판사.

소홀렬 (1992). 자연주의적 유신론, 우주의 마음, 사람의 마음, 컴퓨터의 마음. 서광사.

스티븐 K. 리드 지음. (1992). 인지심리학 제2판-이론과 적용. (김영재, 박현생 역). 박영사.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성원사.

이은희 (1995).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부모 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Lederman, R. P. (1984). Psychosocial Adaptation in Pregnancy. Assessment of Seven Dimensions of Maternal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Rubin, R. (1967a).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1. Process. Nursing Research, 16, 37-245.

Rubin, R. (1967b).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2. Models and Referants. Nursing Research, 16, 342-346.

Rubin, R. (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Walker, L. O. (1992). Parent-Infant Nursing Science : Paradigms, Phenomena, Methods. F. A.

## -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identity, Primi-gravida, Model construction

## Model Construction of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Kim, Hae Won\*

It was assumed that the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is one of the most attribute of the motherhood, that is not biological but cognitive phenomena, appears active process as intelligent human be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hat the identification the cognitive structur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was constructed as a cog-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Tel) 0391-649-7613, Fax) 0391-649-7610



nitive output, has the cognitive structure of cognitive-perceptual factor, cognitive-behavioral factor, and cognitive-emotional factor. Influencing factors of maternal identity was constructed as a cognitive input, which were pregnancy related perceptions (pregnancy intention, minor discomfort, value of motherh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mother, relationship with husband, relationship with social network), preparation to motherhood (maternal knowledge, antenatal self care), and biological factor (gestation period).

This study was the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done from the 3rd January to the 15th March 1996, a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conveniently 226 the primi-gravida during the gestation period, data collection method was self reported questionnaire cross-sectionally. Descriptive

data analysis was done by SAS PC<sup>+</sup>, testing the hypothetical model was done by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using LISREL 8.03 program.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ing, the value of motherhood ( $\gamma=.650$ ,  $T=4.26$ ) the maternal knowledge ( $\gamma=.137$ ,  $T=2.030$ ), the gestation period ( $\gamma=.113$ ,  $T=2.621$ ), showed significant causal effect on the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In conclusion, the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had interrelated cognitive structure consist of perceptual, behavioral, and emotional factors. Significant causal factors influencing the maternal identity were value identified. It seems to contribute toward th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 identity as a cognitive domains that has been regarded highly abstract concept, so has not been validated empirically.